

정부간 협력으로 이집트에 첫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정부간 협력을 통해서 그간 지연되었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을 5월 17일(현지시간) 이집트 신행정수도(New Administrative Capital, NA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이집트의 환경정책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 중소기업(제이에스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크다.

이 중소기업은 2021년에 이미 이 사업을 완공했지만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그간 준공식을 하지 못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올해 2월 실무진을 파견해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을 협의했고, 이번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히삼 압델 가니 압둘라지즈 암나 이집트 지역개발부 장관의 최종 협의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나 장관은 “아랍어로 ‘하야카리마(인간다운 삶)’라는 이번 사업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보기(모델)로 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이집트 간의 민간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집트의 야스민 포아드 환경부 장관 등 이집트 정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성과를 축하했다. 이날 포아드 장관은 한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갖고 이집트 기자주 코라이맛 지역의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녹색산업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17일 오전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Mokattam)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여 이집트 카이로 현지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시찰하고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에너지화 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통해 협력국의 환경정책을 고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난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이집트 폐기물 선별·에너지화 시설 준공식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단 장	장이재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562)
			사무관	금병욱 (044-201-7563)



□ 행사개요

- (목 적) 국내기업이 '20.6월에 수주한 폐기물 선별·에너지화 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하여 사업 완료를 공식화
- (의 의) 그간 매립 중심의 이집트 폐기물 정책을 재활용/에너지화로 전환에 기여,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교량 역할 수행
- (時 /所) '23.5.17(수), 17:00~19:00 / 알 마사 호텔(이집트 신행정수도)

□ 참여자

- 이집트 2개 부처 장관* 및 10개 부처 국장급 등 총 50명

* 지역개발부 장관 히삼 압델 가니 압둘라지즈 암나(Hisam Abdel Ghani Abdulaziz Amna),
환경부장관 야스민 포아드 (Yasmine Fouad)

□ 세부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7:00~17:05('5)	개회선언	지역개발부
17:05~17:10('5)	국민의례	-
17:10~17:25('15)	개 회 사	지역개발부 장관 등 (최대 3명)
17:25~17:35('10)	축 사	장관
17:35~17:45('10)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보고	제이에스티
17:45~17:55('10)	상호 협력사업계획 발표	지역개발부 (차관보 DR. Khaled Kassem)
17:55~18:00('5)	마무리말씀	지역개발부 장관
18:00~18:05('5)	기념촬영 및 준공 세리머니(테이프 커팅)	주요 내빈
18:05~18:08('3)	폐회선언	지역개발부
18:10~19:00('80)	만 찬	참석자 전원